

다산포럼

여성의 생명을 위협했던 출산



황 상 익
서울대의대 교수

문종의 왕비인 현덕왕후는 세자빈 시절 단종을 낳은 바로 다음 날 별다른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출산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23세 4개월 때이다. 한명회의 셋째 딸로 예종의 왕비인 장순왕후는 세자빈 시절 인성대군을 낳은 뒤 셋째 만에 산후병으로 요절했다. 16세 10개월 때이다. 이때 아버지가 된 예종의 나이는 11세 11개월이었다. 중종의 제1계비인 장경왕후는 아들(인종)을 낳고 여섯 만에 역시 산후병으로 별세했다. 23세 7개월 때이다. 인조의 왕비 인렬왕후는 결혼 생활 25년을 통해 6남 1녀를 낳았다. 왕후는 41세 5개월 때 마지막 출산을 하고 나흘 뒤 세상을 떠났다. 소생 중 소현세자는 33세, 효종은 40세, 인명대군은 36세까지 살았다. 30세에 낳은 융성대군은 5세 때 죽었고, 그 뒤로 출산한 2남 1녀는 3개월도 살

지 못했다. 근대 이전, 출산 연령과 자녀 수명의 상관관계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출산과 관련된 사망을 모성사망이라고 하며, 모성사망비는 출생아 10만 명당 사망하는 산모 수이다. 요즘을 한국의 모성 사망비는 11명이며, 다른 선진국들도 대체로 10명 내외이다. 하지만 소말리아 등 일부 국가는 지금도 1000명이나 된다. 근대 이전의 관련 자료를 비교적 충실하게 남아 있는 스웨덴의 경우, 1700년대 모성 사망비는 오늘날의 소말리아와 비슷했다. 왕비들도 출산하다 사망 조선 왕비 46명 중 출산과 관련해서는 4명이 사망했다. 즉 왕비들의 사망 원인 가운데 출산후유증이 9%이다. 행장(行狀) 자료를 이용한 김두열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조선시대 양반 여성 193명 중 출산과 관련한 사망자는 25명으로 13%에 이른다. 이것만으로 보면 왕비들의 모성사망은 양반여성들보다는 조금 낮다. 모성사망을 조금 더 검토해보자. 왕비 46명이 출산한 자녀는 모두 109명이며, 이 출산 때문에 4명이 사망했다. 행장류 자료의 양반 여성들은 모두 838명을 출산했고, 모성사망은 25명이다. 출생아 10만 명당으로 나타내면 왕비는 3670명으로 양반 여성 2983명보다 더 높다. 왕비와 양반 여성들의 자료를 종합하

면, 조선시대 최상위 계층 여성들의 10% 내외가 출산 때문에 사망했고, 출생아 10만 명당으로 나타내면 3000명가량이다. 요컨대 출산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성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였다. 왕비들이 낳은 자녀 109명 중 수명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모두 104명이다. 여기에서 피살당한 8명을 제외한 96명의 수명 평균은 27세이다. 왕자는 28세, 공주들은 26세이다. 왕의 수명 평균 45세, 왕비 51세에 비해 각각 17세, 25세나 짧다. 15세를 넘긴 왕자들은 평균 41세, 공주들은 42세로 아버지·어머니와의 차이가 각각 4세와 9세로 크게 줄어든다. 사실 왕과 왕비의 수명은 전근대 시절 치고는 대단히 긴 편이다. 같은 시기 중국과 유럽 왕가와 비교해도 길면 길지 짧지 않다. 왕과 왕비가 운택한 생활을 하고 보살핌을 잘 받은 덕분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이유는 이들 모두 사람들이 극히 높았던 영유아기를 넘긴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15세를 넘겨 생존한 경우는 왕자 67%, 공주 58%이다. 행장류 자료로 연구한 결과는 남녀 모두 50%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듯이 왕비 소생들이 양반 여성의 자녀들보다 생존력이 높았다. 두 자료

를 종합해 볼 때 조선시대 사람들의 15세 생존율은 50%를 넘지 못했고, 평균수명은 27세 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민중들의 건강 수준이 왕자·공주나 양반 자녀들보다 나았을 리 없기 때문이다. 요절해야 할만한 일 안 당해 '자식을 앞세우는 일'보다 더 큰 비극은 없다고들 한다. 자녀를 낳은 왕비 28명 중에서 25명은 자기 눈으로 자식의 죽음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그러한 불행을 당하지 않은 왕비는 신덕왕후(태조 비, 1356~1396), 장순왕후(예종 비), 장경왕후(중종 비) 등 3명뿐이다. 신덕왕후도 명이 그리 길지 않았지만, 장순왕후와 장경왕후는 앞에서 보았듯이 각각 16살과 23살 때 출산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 합한 꼴을 보지 않았을 뿐이다. 태어난 지 다섯 만에 어머니를 잃었던 인성대군은 2년 뒤에 어머니 장순왕후를 뒤따라갔다. 폐비 신씨(연산 비)는 7자녀 모두, 순원왕후(순조 비)는 5자녀 모두, 정희왕후(세조 비)와 소혜왕후(덕종 비)는 3자녀 모두를 앞세웠다. 고종의 왕비 명성왕후는 다섯 중 넷을 첫돌이 되기 전에 땅에 묻었다. 자녀를 가장 많이 두어 다복했다는 소원왕후(세종 비)도 셋을 자신의 손으로 장사지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실감나게 다가온다.

청춘 특·특

청춘의 열쇠는 책 속에 있다



김 가 희
조선대 경제학과 4년

을 꺼내든다. 새로운 취미도 생겼다. 마음에 드는 책을 모으는 것이다. 광주 시내에 있는 서점에서 저렴한 중고 책을 고르거나, 인터넷 서평을 할 때도 신간서적을 찾는다. 그렇게 차곡차곡 모은 책은 어느덧 내 방 책장을 가득 채웠고, 두둑해지는(?) 책장을 볼 때마다 마치 내 지갑이 두둑해진 것처럼 든든함을 느낀다. 내가 책에 빠지게 된 것은 병원생활에서 시작했다. 약 두 달 전 암마가 갑작스레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병간호할 사람이 많지 않았던 탓에 학교 측에 사정을 말하고 병간호에 나섰다. 처음에는 그러저러 서평을 할 때도 신간서적을 찾는다. 그렇게 차곡차곡 모은 책은 어느덧 내 방 책장을 가득 채웠고, 두둑해지는(?) 책장을 볼 때마다 마치 내 지갑이 두둑해진 것처럼 든든함을 느낀다. '병원에 있으면 심심하니까 책이라도 좀 읽어.' '책은 뭘 책' 처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나도 무료한 병원생활이 이어지자 결국 책을 집어들게 됐다. 오빠가 준 책은 병원 일에만 있어 있는 날 위한 '여행서적'이었다. '엄마, 일단 가고 봅시다', '엄마, 결국은 해피엔딩이야', '엄마, 내친김에 남미까지!' 이 세 권의 책 저자인 태원준 작가

는 어머니를 모시고 세계여행을 다녀왔다. 처음 아시아와 유럽여행을 다녀온 뒤 두 권의 책을 냈고, 이후 다시 어머니를 모시고 중남미로 여행을 떠난다. 보기 드문 모자의 여행기다. 시간가는 줄 모르고 읽어내려간 이 책을 통해 나는 '명~' 때리며 생각에 잠길 수 있는 여유를 얻었다. 엄마가 쓰러지기 직전에도 나는 친구들과 베틀남으로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 그때도 그랬다. 연인 또는 친구들과의 여행을 꾸미웠지 엄마랑 단둘이 여행을 다녀오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 거기다 배낭여행이 러니... 병실에 누워 잠든 엄마를 보자 많은 생각들이 스쳐갔다. 그때부터다. 독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 뒤를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소설이나 시 같은 문학보다는 배낭여행기 등 여행 관련 서적을 즐겨 찾게 됐다. 자연스레 '배낭여행' 욕심이 생겼다. 청춘을 무기삼아 짜여진 일정이 아닌, 배낭을 메고 내 손으로 길을 찾아나서는 도전을 하고 싶었다. 벌써 대학 4학년이다. 전공 공부와 과제, 취업준비로 무척 바쁜 삶을 살고 있었

다.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애써 과거의 날 위로해보기도 한다. 또래 학생들이 책을 읽지 않는 것도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는 탓에 시간이 없어서 일 것이다. 전공서적이나 토익문제집 외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사치나 다름없는 '안올한' 세대이기에... 책을 읽는다고 곧장 학업 성적이 오르거나 취업이 되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보는 눈은 분명 달라질 수 있다. 맹목적인 대기업, 공무원 취업이라는 시야에서 벗어나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고 행복한 삶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와 용기를 주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가 바로 책이다. 몇 권의 책을 더 읽었을 뿐인데,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분명 달라졌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뭐든 할 수 있다는 호기와 나만의 삶을 살고 싶다는 열정. 그리고 그런 삶이 분명 더 행복할 것이라는 확신까지. 과제, 수업, 아르바이트, 취업준비로 누구보다 바쁜 삶을 살고 있는 '답답한' 청춘들에게 남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를 위한 삶'을, 더 큰 꿈을 품을 수 있는 '기회의 열쇠'를 책 속에서 찾아보라고 권하고 싶다.

기 고

종가의 문화콘텐츠는 남도의 자산



이 기 환
전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심사업인 관광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문화콘텐츠다. 종가에 담긴 문화 콘텐츠는 관광자원으로의 활용 측면에서 크게 정신문화, 음식문화, 가족문화로 구분할 수 있다. 정신문화는 수백 년을 이어오며 정착한 기풍이란 무형의 문화에 담긴 이야기들, 음식문화는 종가의 대표 음식과 그 음식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이야기를, 가족문화는 종택을 이루는 가족에서 생활용품에 이르는 유형의 자산에 담긴 이야기를 일컫는다. 종가의 정신문화를 체험하는 예법체험은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인문학 교육으로 자리 잡고 있다. 종가의 정신문화가 정착한 조선시대는 사회적으로 올바른 인간성과 공동체적 윤리의식에 대한 화두가 시대정신이었다. 종가에서는 가문의 영광을 위해 이러한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생활을 규율하는 규범과 윤리적인 법도를 포괄하는 예법에 따라 자녀를 훈육했다. 그러한 과정 속에 각 종가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이 기풍으로 정착됐다. 이 때문에 종가의 예법체험은 초·중·고교와 공공기관, 기업체를 타겟으로 하는 문화콘텐츠로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교육적인 관점에서 종가의 예법은 옛 전통문화에 대한 학습효과와 함께 예법에 담긴 인간 존중 사상을 통해 이타심과 공동체 정신 함양에 큰 도움이 된다. 사회적 관점에서도 공직윤리, 기업윤리와도 연결되는 까닭에 건전한 사회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종가의 음식문화는 현대인이 추구하는 웰빙과 맞닿아 있다. 종가의 음식은 현대인이 선호하는 유기농 재료를 사용하고, 숙성을 통해 영양성분을 극대화한 음식이다. 맛 또한 깊고 그윽하다. 전통적 방식의 데코레이션은 덩이다. 특히, 종가집 음식의 문화콘텐츠로서 가치는 정성에 있다. 종가집 음식은 미각적으로도 매우 뛰어나지만, 음식 한 가지를 만들기 위해 길게는 몇 달을 준비하는 과정은 음식을 먹는 이들에게 '맛' 이상의 '무엇'을 선사한다. 종가집 종부 상담수가 '음식명인'으로 인정받는 이유다. 머느리에서 머느리로 이어져 내려온 종가집 종부는 음식 조리법을 전수받기 이전에 음식을 대하는 마음을 먼저 배운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맛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이다. 문화콘텐츠로서 종가의 음식문화는 과거엔 먹는 즐거움에

그쳤지만, 최근엔 웰빙 열풍을 타고 조리법으로 그 초점이 옮겨지고 있는 것도 종가의 음식문화 경쟁력을 높이는 긍정적 요인이다. 종가의 가족문화, 종택은 그 자체로 관광자원이다. 전남의 34곳의 종가 중 무려 14곳이 문화재로 지정된 이유다. 종택이 위치한 곳은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이며 풍광도 빼어나다. 여기에 수백 년을 가꾸어온 마당과 정원의 아름다움은 덩이다. 또한,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온 종택은 그 시간만큼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종택의 외관은 옛 문화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고, 그 속살에 담긴 이야기는 더 큰 재미를 선사한다. 종가는 이처럼 문화콘텐츠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무한하다. 그런데, 이는 가치 이상의 가치를 내재하고 있다. 편리성을 추구하는 흐름 속에 몇몇 종가는 전승기반을 마련하지 못해 단절될 위기에 놓여 있다. 경제적 이유가 최대 요인이다. 속된 표현으로 먹고 살 것이 마땅치 않은 까닭이다. 종가가 관광콘텐츠로 정착하여 경제적인 부담 감축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전승기반은 마련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전남이 종가를 관광콘텐츠로 육성하고 싶은 또 하나의 이유다.

社 說

말라가는 지방재정 확충 대책 시급하다

지방재정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지난 몇 년 사이 지방재정이 급격히 나빠진 것은 중앙 정부의 복지 사업을 매칭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지자체의 복지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탓이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지방정부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매년 14.5%에 이르지만, 같은 기간 지방정부 총 예산 증가율은 6.2%에 그쳤다. 이러한 지자체 예산이 비자 않을 수 없다. 지방세와 국세의 불균형, 중앙 정부 복지 예산의 지방 전가(轉嫁) 등 구조적 모순이 해결돼야 하는 이유다. 최근 나온 한 보고서만 보더라도 전국 지자체의 살림살이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년 사이 2배로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2005년 12.0%에서 2014년 24.5%로 늘어난 것이다. 반면 중앙정부는 사회복지비 비중이 21.8%에서 27.3%로 10년 사이 1.2배 늘어난 데 그쳤다. 지자체의 사회복지비 비중이 커진 데

는 국고보조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게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보조율은 2006년 70.9%에서 2014년 61.8%로 줄어 들었다. 결국 국고보조사업 부담이 커지면서 지자체 현안에 따른 자체 사업 발굴과 시행이 어렵게 돼 지방자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높이고 지방세 몫으로 배정되는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엇그제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중앙당에 공식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방 재정난 해소가 당면 목표인 자치단체들로서는 그만큼 절실하고 절박한 요구라 하겠다. 이는 1995년 민선자치 이후 '반쪽 자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것인 만큼 여야를 떠나서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운전자 심증팔구 교통딱지 서민증세 아닌가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이 때문에 과태료나 범칙금을 물어야 하는 운전자들의 불만이 많다. 지난 2015년 광주·전남 경찰이 징수한 교통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은 663억 원으로 집계됐다. 무인단속 카메라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된 건수는 모두 129만 건에 이르렀다. 광주·전남 등록차량이 148만 대인 점을 감안하면 차량 10대 중 8.7대에 해당된다. 광주의 경우는 등록차량이 61만 대인데 누적으로 93.4%인 57만 대가 단속돼 사실상 거의 모든 차량이 범을 어긴 셈이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전국 교통 과태료·범칙금 징수액은 8046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으로 8000억 원을 돌파한 것이다. 2012년 5543억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2500억 원이나 늘었다. 특히 최근 3년간 전국의 연간 범칙금 징수 평균 증가율은 12%~15%인 데 비해 광주는 17%~34%로 증가세가

가파르다. 그만큼 위반 빈도가 커지면 징수액도 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3년간 광주에서만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759억 원, 전남에서는 1003억 원이 걷혔다. 유독 이 지역에서 징수액이 높은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운전자들 사이에서 모두 129만 건에 이르렀다. 광주·전남 등록차량이 148만 대인 점을 감안하면 차량 10대 중 8.7대에 해당된다. 광주의 경우는 등록차량이 61만 대인데 누적으로 93.4%인 57만 대가 단속돼 사실상 거의 모든 차량이 범을 어긴 셈이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전국 교통 과태료·범칙금 징수액은 8046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으로 8000억 원을 돌파한 것이다. 2012년 5543억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2500억 원이나 늘었다. 특히 최근 3년간 전국의 연간 범칙금 징수 평균 증가율은 12%~15%인 데 비해 광주는 17%~34%로 증가세가

無 等 鼓

1610년 1월 7일, 갈릴레오 갈릴레이(1564~1642)는 자신이 손수 만든 망원경으로 목성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데 태양계 다섯 번째 행성인 목성 근처에는 3개의 작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가 여러 날 관측한 결과 경이롭게도 목성 주위 4개의 별들이 자리를 옮겨 다녔다. 그것은 불박이별이 아니라 지구 주위를 달이 돌고 있는 것처럼 목성 둘레를 도는 위성이었다.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하던 '지동설(地動說)의 명백한 증거였다. 그는 네 개의 목성 위성에 '메디치의 별'(Medician Stars)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예술가와 과학자를 후원하는 메디치 가문에 대한 경의의 표시였다. 앞서 관측했던 달은 수성처럼 매끈하지 않았고, 금성은 달처럼 모양이 변했으며, 은하수는 수많은 별들의 집합체였다. 같은 해 3월, 그는 달의 분화구, 금성의 위상(位相) 변화, 목성의 4대 위성 등 새로운 천문학 관측 결과를 담은 '별들의 소식'(시데레우스 눈치우스)을 출판한다. 책은 초판본 500여 부가 며칠 새 절판될 정도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대부분의 과학자와 성직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목성의 4개 위성은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로 명명됐다. 현재까지 목성은 60여 개의 위성을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목성을 천체망원경으로 관측하면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주위 4대 위성들이다. 그리고 목성 표면에 가로로 그어진 갈색 줄무늬에 시선이 쏠린다. 시간대를 잘 맞추면 목성의 대적반(Great Red Spot)을 비롯해 목성 위성이 목성에 가려지거나, 위성 그림자가 목성표면에 드리워지는 현상도 볼 수 있다. 오는 7월 4일, 목성 탐사선 '주노'가 목적지에 도착해 관측 임무를 시작한다. 지난 2011년 8월 발사된 후 5년 동안 28억km를 여행한 끝에 목성 궤도에 도착했다. 탐사선은 목성 주위 궤도를 돌며 50km 두께의 목성 구름층을 뚫고 배일에 싸인 목성의 산비를 들춰내 예정이다. 7월 9일에는 해 저면 서쪽 하늘의 초승달 옆에 목성이 바짝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일이 바쁘더라도 한 번쯤 눈을 들어 500여 년 전 한 과학자의 마음으로 목성을 바라보면 어떨지.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목성 탐사선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